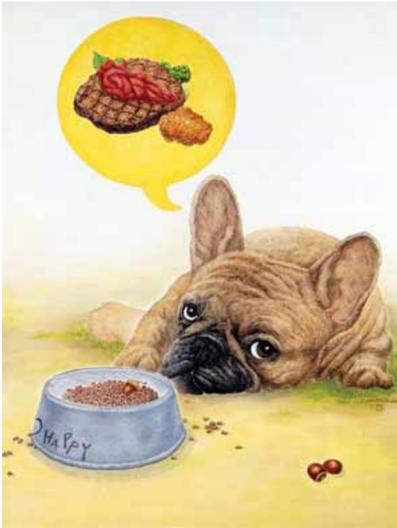


동고동락...개를 바라보는 애정어린 시선

롯데갤러리 4~30일 무술년 세화전

13인의 작가 개와의 추억과 삶
그림·부조·조각·설치 작품 등
다채로운 장르로 풀어내



하루K 작 '해피는 새해에 꿈꾼다'

주인이 밥그릇에 넣어두고 간 건 사료지만, 바닥에 누운 강아지 해피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맛있는 스테이크를 떠올린다. 하루K 작가의 '해피는 새해에 꿈꾼다'. 귀여운 소녀의 품에 안긴 귀여운 강아지는 그녀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작은 위안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김동아 작가의 '치유'다. 작가들이 풀어낸 '개'의 모습은 어떨까.

롯데갤러리(롯데백화점 11층)가 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황금개띠 해를 맞아 무술년 세화전 '동고동락 : 내가 나를 부를 때'를 개최한다.

모두 13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은유와 상징, 의인화를 통해 인간사를 개의 시선에서 담아낸 다채로운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갤러리 측은 우리 삶의 다양한 모습과 함께 해학과 유희와 더불어 새해를 보다 유쾌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시를 기획했다.

다양한 반려동물 가운데서도 인간과 가장 가깝고,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개 아마도 '개'일 터다. 유년 시절 개를 키우며 겪었던 스토리 좀 누구나 하나정도 있을 거고, 지금도 개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들도 많을 거다.

전시 주제 '동고동락'에는 나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일상의 매 순간 순간을 같이 했거나 현재를 같이 하고 있는 개를 애정 어린 시선에서 바라보는 의도를 담았다.

작가들은 각자가 갖고 있는 개에 얽힌 추억, 에피소드와 새해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내용을 한국화, 서양화, 부조, 조각, 설치 등 평면과 입체 형식으로 다채롭게 풀어냈다. 개를 통해 다양한 삶의 단편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바람을 담은, 해학과 풍자 넘치는 작품들이다.

참여작가는 양재영, 오혜경, 조광성, 김희상, 주후식, 배수민(이상 입체), 객수연, 김동아, 박수만, 전현숙, 하루K, 송영학, 이두환(이상 평면) 등이다.

한편 신세계갤러리도 오는 25일부터 2월 20일까지 '2018 무술년 신년기획전'을 열 예정이다. 문의 062-221-180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객수연 작 '당구동월'



오혜경 작 '쏟아진다'

광주문화재단 2018년 지역협력형사업 공모

5개 분야 27억3000만원 지원...9~10일 사업 설명회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2018년 지역협력형사업 공모가 시작됐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김윤기)은 오는 25일까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지역특화문화거점지원, 문화예술교류지원,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다. 총 지원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약 2억 5000만 원 증액된 27억 3000만 원으로 190여 개 단체를 선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2018 지역협력형사업'은 각 영역별 기획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과 지역특화문화거점지원사업은 지원예산의 15% 범위 내에서 문화소의 지역 및 계층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은 도심재생·활성화와 연계한 공공미술프로젝트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에는

일본 북해도문화재단,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가 포함됐다.

또한, 2016년부터 시행된 '지원 휴식년제'를 이어 각 사업 성격에 따라 개인은 1년, 단체는 2년 또는 4년 연속지원을 받은 경우 지역협력형사업에 한해서 휴식기를 갖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 분야와 신청방법, 제출서류, 접수일정 등 5개 사업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설명회는 오는 9일~10일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에서 개최된다. 9일 오전 10시 공연장상주단체 지원사업, 오후 2시 지역특화문화거점·레지던스프로그램·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을 실시하고 10일 오후 2시에는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설명회가 열린다. 문의 062-670-7442~5.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노창수 시인 평론집 '토박이의 풍자 시학' 펴내

문예지 등에 발표했던 문학의 본질 묻는 21편 수록

노창수 시인이 평론집 '토박이의 풍자 시학'(푸른사상)을 발간했다.

문예지 등에 발표했던 평론 등을 묶은 책에는 모두 21편이 글이 수록돼 있다. 저자는 오늘날의 작가들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본질과 정신적 성장에 무게를 두는 창작 태도라고 역설한다. 그러면서 "단말마적인 물질 문명관이자 외포로만 인식하려는 고질적 병폐"에 대한 자성을 촉구한다.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 '이야기로 창작력을 얻다', 제2부 '묵인의 풍자와 소통하다', 제3부 '토박이 서정을 잇다'로 각각의 글은 문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묻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저자는 "깊은 옛 휴일이었을 때가 좋았다"며 "포장된 길, 문명화된 길, 여유와 야백이 없어진 길에서 우리에게 삶은 가파르다 못해 지금은 위험하기까지 하다"고 강조했다.

그리면서 "'깊은 자연'의 본질이 없는 '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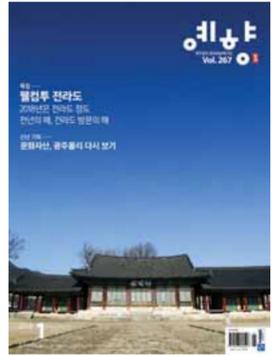
문명'의 결과적 상황만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앞은 지 반성해야 한다"며 "성공적인 대중성보다는 그 결과가 있기까지 생의 과정을 리얼하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 시인은 '현대시학'(1973)에 시가 추천됐으며 광주일보 신춘문예(1979)에 시가 당선돼 문단에 나왔다. 시 '겨울 기억제', '붉은 서재에서' 등과 시조집 '슬픈 시를 읽는 밤', '조반권법' 등을 펴냈다. 광주문인협회장과 한국시조시인협회 부이사장을 역임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일보 문화예술 전문 매거진

예향 1월호



전라도 정도 1000년 정체성과 비전 찾기

'아침편지 배달부' 고도원에 듣는 새해 희망

'황금 개띠의 해인' 무술년 2018년은 호남 지역민들에게 더욱 의미깊은 해이다. '전라도 정도(定道) 1000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이다.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예향' 1월호는 특집 '월경 투전라도'를 통해 전라도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천년 시간여행을 떠난다.

장흥 출신 이대홍 시인은 전라도의 특성으로 자연에서 배운 넉넉한 마음, '인심'을 첫 손가락에 꼽는다. 또한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 3개 시·도가 올해 펼치는 다양한 천년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전라도 방문의 해'에 맞춰 전라도의 맛과 멋, 흥을 만끽할 수 있는 테마관광지 100곳을 소개한다.

예향 초대석은 고도원(66) 아침편지문화재단 이사장을 만났다. 매일 아침 '마음의 비타민' 같은 짧은 편지를 띄우고, 상처입고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아침편지 배달부'이자 '명상치유 전도사'다. 고 이사장에게서 새해 용기를 주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말을 들어봤다.

새해 트렌드는 어떠할까? 세상의 고정관념 보다 '내 기준'을 중시하는 젊은이들의 주체적인 삶을 반영한 '왜 더 독(Wag the Dogs·꼬리가 몸통을 흔든다)을 비롯해 올해 트렌드를 전망해봤다.

새해 기획으로 '광주폴리(Folly) 다시 보기'를 시작한다. 2011년 광주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특별 프로젝트의 하나로 탄생한 폴리는 현재 30개로 늘어났다. 연중 기획을 통해 광주폴리가 시민들의 일상을 넘어 지역의 문화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본다.

'신(新)남도택리지' 세 번째 여정은 화순이다. 무등산 남쪽 기슭에 자리한 무등산 양태목장을 비롯해 여독을 풀 수 있는 온천 여행, 이색 먹거리 색동두부 등 화순의 매력을 찾아 길을 떠난다.

국립 광주박물관에서 오는 4월 8일까지 열리는 '왕이 사랑한 보물- 독일 드레스덴연합 명품전'을 화보로 소개한다. '강건왕'(The Strong)으로 불린 18세기 작센 선제후이자 폴란드 왕 아우구스투스 2세가 수집한 보석·상아 세공품과 도자기 등 아름다운 예술품은 독자들의 시선을 잡아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연예인 되기 광풍을 다룬 대중문화 평론가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과 여행 칼럼니스트 노중훈의 슬로베니아 여행, 정윤수 성공회대 문화대학원 교수의 압제에 저항한 시인 로르카와 네루다의 이야기도 흥미롭다. /송기동기자 song@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2017-2018 신양파크호텔 겨울이야기

객실패키지 | 2017.12.1 ~ 2018. 2. 28

- 스탠다드룸 ₩ 80,000
- 디럭스룸 ₩ 90,000
- 조식별도 1인 15,000 / 세금포함 -

연회장 할인축제 | 2018.1.1 ~ 3. 31

웨딩, 각종 가족모임 및 기업체 세미나 등 출장파티를 포함한 당 호텔 연회 행사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혜택 : 식료 10%, 음주류 30% 할인

신양파크호텔 예약 및 문의 객실 ☎ 062) 228-8000 연회 ☎ 062) 228-4711~2